

고혈 빼먹는 악덕업주 피눈물 나는 알바생들

여름방학 알바 최저임금·근로시간 위반 등 착취 여전...청소년 보호 대책 시급

광주 모 고교 3년 김모(19)군은 지난해 11월 초 광주 A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부모와 떨어져 홀로 사는 김군은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것. 주인은 미성년자인 김군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7시간씩 일을 시켰다.

김군은 한 달간 매일 7시간씩 일을 했지만 결산을 할 때 돈이 맞지 않으면 김군의 월급에서 제해 고작 65만 원을 손에 쥐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이 4860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도 못받은 셈이다.

결국 김군은 지난 3월 초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못 받은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신고했으나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편의점 주인이 신고 사실을 알고 도리어 김군 아버지에 김군을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하는 조건으로 최저 임금을 주지 않은 것.

여름방학을 맞아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등 청소년들을 울리는 근로착취는 여전히 심각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청소년 안심알바신고센터'를 4년째 운영하

광주 '청소년 안심알바센터' 피해신고

2012년 75건·2013년 107건

올해 상반기만 75건 달해

해마다 급증 추세

유형별 피해 신고 (복수응답)



업종별 피해 신고



고 있지만 홍보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청소년들이 '청소년 안심알바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데다 이를 알더라도 노동법에 익숙치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악덕 업주들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신분을 교묘히 이용해 절도범 등 범인으로 내몰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해 신고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하면,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14일 '청소년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교 1~3학년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신고건수는 모두 75건. 지난 2012년 75건, 2013년 107건으로 해마다 피해신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수가 대략 수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신고는 아직도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이 각각 63건(중복)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휴수당 58건 ▲임금지급 원칙 위반 20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건 ▲카페 8건 ▲PC방 5건 ▲기타 24건 등이다.

'청소년 안심알바센터' 박수희 상담사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주들이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 항목을 무시한 채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위법사례 적발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인 감시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청소년 근로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화물연대 광주지부 노조원 300여명이 14일 오후 광주 기아자동차 인근 도로에서 경고파업 집회를 열고 화물민생방안 처리 등을 촉구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물연대 노조, 생존권 보장 요구 경고 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14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회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주시 서구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 '7·14 하루 경고파업 승리 결의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문진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은 출정식에서 "2012년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

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경고파업 후에도 화물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 민생법안의 주요 내용은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화물차 통행료 전일, 전차종 할인 ▲지입제 폐지, 화물차량 재산권 보장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 담

겨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표준화된 운임제 없이 책정된 낮은 운송료는 화물 노동자로 하여 과적·과속·졸음운전 등 위험한 운송행위를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연대 전남지부도 이날 광양항컨테이너 부두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고 파업을 벌이는 등 전국 15개 화물연대 지부 조합원 1만여명은 이날 하루 일제히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넉달 이상 고의로 임금 안주면 2배로 물어내야

임금체불 제재 강화 개정안 고용부 이르면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고의로 넉 달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

야 한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 위반 시 지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하면 50%를 감면해 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하게 된다.

1~2주의 직무 훈련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노무종사자는 수습 신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판매 단속 종사자, 주유원,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형뉴스

"전남대병원장 선임 관련 교육부 답변은 월권행위"

지병문 전남대총장 "수용 불가"

전남대병원 선임 원장 후보 선출이 적법하다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대해 전남대병원 이사장이 질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남대병원 이사장인 지병문 전남대총장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장 임용 후보자 관련 교육부 회신에 대해 "이사회가 질의한 것은 의결 정족수의 기준이 적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 즉 재적의 과반이 6명인지 5명인지 여부"라면서 "교육부는 법률해석만 하면 되는데 묻지도 않은 것을 답하는 월권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회신에서 재적 과반이 6명이라고 확인해 준 만큼 지난 2월 추천이사회의 표결 수는 5표와 4표로 어느 후보도 재적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 총장은 "지난 2월 병원장 후보 선출을 한 이사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지, 아니면 18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해 전남대 선임 병원장 선출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워셔액 튀었다" 시비 끝 먹살잡이

○...신호대기 중 얼굴에 워셔액이 튀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와 시비 끝에 서로 먹살잡이를 한 50·60대 운전자가 나란히 경찰서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60)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영주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멈춰세운 뒤 앞 유리창에 워셔액을 뿌렸으나 나란히 정차해 있던 이모(58)씨의 얼굴 등에 튀는 바람에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는 것.

○...운전석 창문을 연 채 신호대기중 이던 이씨는 워셔액을 맞은 뒤 김씨에게 화를 냈으나 김씨가 따지자 몸싸움을 벌였는데, 담당 경찰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끝났을 일일 텐데"라며 허를 끝. /백희준 수습기자 bhj@

(주)오천경매 / 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특수물건

특수비법

만이 살 길이다!

- 특수물건(지분, 법/지, 유치권, NPL 등등)만이 정답입니다!
- 특수비법을 알아야 특수물건에 도전합니다!
- 입장/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십시오!
- 오직! 특수경매만을 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단, 상담후 본사가 결정합니다!